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시청 등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안전한 청사 구축

정읍시가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9억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25개 청사의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청을 비롯한 25개소 청사(시청 1, 시의회 1, 읍면동 23)는 모두 내진성능을 100% 확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도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청과 읍면동 청사 등 25개 공공청사를 우선으로 내진성능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요청, 29억5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1년 하반기 정읍 체력왕 선발대회 시상품 전달

올해 하반기 정읍을 대표하는 13명의 체력왕이 탄생했다.

시립인정 정읍스포츠클럽(회장 윤준호)은 2021 하반기 정읍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3명의 참가자에게 상패와 시상품을 전달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수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체력인증센터 방문에 상패와 시상품을 전달받았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만에 걸쳐 진행된 체력왕 선발대회에는 남자 73명과 여자 78명 총 151명이 참가했다.

연령대별로 심폐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등 8개 항목의 건강 관련 체력 테스트를 통해 13명의 체력왕이 선발됐다.

국민체력100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사적인 모임 최대한 자제”

## 정읍시, 마스크 쓰기·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당부’

유진섭 시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만 세대에 대상민 호소문을 발송했다.

호소문에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시도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전파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위기가 더욱 가중되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대규모 행사나 모임은 물론, 사적인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발열과 기침 등 몸이 증상이 있으면 정읍시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2차 접종 후 3개월 후부터 예약 없이 추가접종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접종을 촉구하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운산 도솔제 인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수려한 주변경관과 어울려져 탄성을 자아낸다.

## 50m높이의 시원한 물줄기 ‘탄성’

### 고창 선운산, 도솔제 인근 명품 경관폭포 탄성

선운산 도솔제 인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수려한 주변경관과 어울려져 탄성을 자아낸다. 폭포 높이만 무려 50여m에 이른다. 좁은 바위 사이를 지나 곧은 기둥이 되어 쏟아지는 물소리 또한 그 모습만으로도 경쾌하면서도 시원스럽다.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 명품 경관폭포가 완성됐다.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은 13일 ‘선운산 경관폭포’ 시연 행사를 열었다. 도솔제 밑 산중턱에 솟아있는 천연 기암괴석을 활용한 폭포는 50m높이에서 쏟아진다.

한여름 웅장한 물줄기는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해 200만명 이상이 찾는 선운산도립공원은 봄에는 동백 가을에는 꽃무릇, 단풍으로 전복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앞으로 무장애데크길을 폭포앞까지 연장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폭포 앞 조망타워, 포토존 등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에 조성된 웅장한 경관폭포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선운산의 새로운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도솔제 인근 탐방로 등과 함께 연계하여 더욱더 각광받는 선운산도립공원이 될수 있도록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수목원·경관조경 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 교류’

### 고창군-천리포 수목원, 상호협력 체계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 전북 고창군과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과 ‘경관조경 활성화 및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유기상 고창군수,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최대의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이다. 2000년에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았다.

주요 협약사항은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 협력’, ‘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자원 교류’, ‘식물유전자원의 수집과 증식·조성에 관한 기술과 정보 지원’, ‘교육·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협력’, 수목원 및 경관조경 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 교류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적인 생태도시 전북 고창군과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세의원)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해 진행했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4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올해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총 34개 관·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416건의 질의 및 지적 등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각종 현안 사업 및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그중 시정30건 처리요구105건 권고03 총247건을 채택하여 위원들의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와 달리 많은 현장을 찾아 행감특위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발생,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

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안군의 대처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강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살피고 군정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유현준 설계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내년 착공

고창군 랜드마크 자리잡을 고창복합문화도서관이 통합설계(토목·조경·설비 등)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2층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통합설계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복합문화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해 지상 2층, 지하층의 연면적 3815㎡의 규모로 고창읍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지구 내에 지어진다.

설계를 맡은 유현준 건축가는 큰 나무 숲의 가지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건축공간을 구상했다. 국내 도서관 건물로는 보기 드물게 긴 장방형의 목구조와 경사진 천장, 가변형 서가 등이 특징적이다.

또 군민들이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창을 활용해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녹색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갖춘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 단계별 자문,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조달청 등의 기관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설계안을 관련 지역주민, 관내 건축가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최종 점검하고 의견을 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리며, 고창읍성, 고인돌, 갯벌, 운곡습지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